

대입진학지도지원단 활동 본격화

전북도교육청, 진학전문교사 61명 참여·지원단 발대식 개최... 2021학년도 대입 정보 전략 지원 등 역할 담당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이 25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이날 오후 4시 8층 회의실에서 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장진호 서립고 교사를 단장으로 총 61명의 진학전문 교사가 참여하며, 전문위원(3명), 업무팀(10명)도 지원에 나선다.

지원단은 ▲연수 및 현장지원팀 ▲대입 진로진학상담팀 ▲자료개발팀 ▲학생부종합전형 연구팀 ▲수능전형 연구팀 ▲대의협력팀으로 나뉘어 도내 단

위하고 대입진학지도 역할을 제고하고 2022학년도 대입진학지도 정보 및 전략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가운데 자료개발팀은 대학별 전형자료를 수집·분석해 대학진학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특별전형(농어촌, 기회균등, 논술 등) 연구 지원 분석, 교사용 진학지도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게 된다.

대입 진로진학상담팀은 은·오프라인 대입상담을 맡게 되며, 고3 대상 수시·정시 진학상담과 모의면접 현장지원, 콜센터 대입상담교사단 운영을 담당한다.

또 학생부종합전형 연구팀은 고, 2 학교활동 프로젝트연구 및 아이템 제공, 수시전형 합격사례 분석 자료와 면접가이드 제작에 참여한다.

특히 수능전형연구팀과 연수 및 현장지원팀은 해당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을 지닌 선생님들을 위촉해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은 대입전형 결과 및 주요대학 전형요강 분석, 수시·정시 지원전략, 단위학교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4월과 7월, 12월에 심층 전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2학년도 대입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역량있는 진학전문 교사들로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을 구성했다"면서 "지원단은 사교육 진학컨설팅 수요를 해소하고 권역·학교 단위로 체계적인 진학지도에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2011년부터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을 구성하고 대입전형의 다양화에 따른 맞춤형 진학정보 안내와 상담을 진행해 왔다.

호원대, 전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박사 석좌교수로 임명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3월 1일자로 김은기(金銀基) 전 공군참모총장을 항공정비공학과 석좌교수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은기 박사는 1952년 충남(서천) 출생으로 군산고, 공군사관학교(22기)를 졸업하고 임관해 39년의 군 기간 동안 제1정투비행단장, 공군작전사령부, 공군본부 기획관리 참모부장, 공군참모차장, 국방부 정보본부장, 공군참모총장(대장)을 역임했다.

전역 후 극동방송사장,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대전과학기술대학교총장을 지냈으며, 현재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는 대한민국을 있게 한 국내외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감사하고 후손세대가 이를 기억하게 하는 범정부적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전주대 박물관 직원들 학교 발전기금 기부

전주대는 박물관 직원들이 학교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 252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박현수 학예연구실장과 옥창민, 박은지, 이향연 학예연구사, 안정수 학예연구원이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전주대 박물관은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 김위의 인문학 등의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주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및 문화재 조사 등 다양한 학술연구를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올해의 대학박물관의 선정되는 등 대학박물관의 소임을 지역에서 선도하고 있다.

한편 박물관 직원들은 2013년부터 학교와 박물관 발전을 위해 기부해 오고



전주대는 박물관 직원들이 학교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 252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있다. 박현수 학예연구실장은 "학교의 발전을 위해 일한 박물관 직원들의 수고에 의해 기부가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전주대학교 및 박물관의 위상을 더욱더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선도하는 대학박물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인 총장은 "박물관 직원들이 합심해 사업을 진행하며 그 노력과 땀의 결실이 기부에까지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문화유산연구 및 교육에 힘써주는 박물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PE형 인재양성 Hi-PBL 개발 완료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수-학습 혁신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호원대만의 교수법인 Hi-PBL(Howon Industry, interaction, interest - Problem Based Learning) 개발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Hi-PBL은 4차 산업혁명과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호원대 인재상인 HOPE(Humanity, Open, Practical, Enthusiasm)형 문제해결역량을 갖춘 현장 친화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혁신적 교수-학습 방법으로써, PBL을 활용한 호원대만의 차별화된 교육 모델이다. 특히 2020학년도 1학기 시범(PILOT) 운영을 통해 얻어진 학습 성과와 수업사례분석을 통해 교육 모델을 보완했다.

전주비전대, 2020 산학협력 기술지원 성과확산 발표회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지난 23일 '2020년 산학협력 기술지원 성과확산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1유형) 산학협력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산학공동 기술개발 과정을 비롯해 산업체 애로기술을 지도하는 VDS(Vision Doctor System) 사업의 운영 성과를 대·내외에 공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했다.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필수참석자 30명 이내로 축소해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신희재 교수(기계과)의 정전 집진 필터 시스템 설계-버스정류장 공기청정시스템 기술, 김진영 교수(물리치료학과)의 장애아동의 운동기술



평가 및 재활보조기구 적용 산업체 애로기술지도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산학공동 기술개발 과정으로는 임택백 교수(전기과)의 농업용 방제드론의 방제면적 산출 알고리즘 및 방제 서비스 플랫폼 개발과 이근상 교수(지적토목학과)의 드론 광학 센서 기반의 식생지수 정확도 평가 등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들도 함께 소개돼 큰 관심을 받았다.

전주비전대 LINC+ 사업단 줌 활용 온라인 교수법 특강

전주비전대학교 LINC+사업단은 사회맞춤형 교육을 위해 줌을 활용한 온라인 교수법 특강을 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특강은 비대면 수업에서 학생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획됐다.

'Blended Learning 교수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권유선 교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면/비대면 혼합 수업 설계 및 운영을 위한 교수법 적용 사례 등을 설명했다.

최승훈 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따른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도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해 학생들과 서로 소통하며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청소년 놀이 공간 조성 사업 지속한다

올해 14개 대상 학교 선정·25일 담당자 워크숍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1년 청소년 놀이 공간 조성 학교 14개교를 선정, 25일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놀이 공간 조성사업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참여디자인 교실 운영'을 통해 학습과 놀이, 휴식 등 균형잡힌 삶의 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아이들이 학교 안에 자신들만의 놀이 공간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가 놀 권리를 회복하고, 민주시민 역량을 길러 나가는 것이다.

올해 대상 학교는 ▲전주 초포초 ▲군산경포초 ▲익산한별초 ▲정읍복초 ▲남원노암초 ▲김제 월촌초 ▲삼례중앙초 ▲진안 마령초 ▲무주 안성초 ▲장수 계남초 ▲임실 오수초 ▲순창중앙초 ▲고창 매산초 ▲부안초 등이다.

워크숍에는 14개교 교장(감) 및 담당교사, 교육지원청 장학사 및 직무관, 계약담당자, 시설업무 담당자, 신규설계사 등이 참여해 청소년 놀이 공간

고창교육지원청 새내기 공무원 실무교육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근)은 23~24일 이틀 간 새내기(근무경력 3년 미만) 지방공무원들의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내기 공무원들의 현장 적응을 도와주고, 선·후배 간의 소통을 통해 소속감과 팀워크를 높여주기 위해 마련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연수 프로그램의 잇따른 취소로 인해 학교 현장의 저경력 공무원들이 지출업무 등 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한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 조직 내 빠른 적응과 경쟁력 향상, 현장 중심적 친화감 및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실무교육 1일차에는 ▲학교회계 실무(지출) ▲북부관리 및 감사사례 ▲선배와의 소통의 시간을 운영하고, 2일차에는 ▲청렴교육 ▲교육공무직 급여 ▲학교시설물 관리를 내용으로 진행된다.



전북대학교는 신임 대학원장에 차연수 교수(식품영양학과, 사진 오른쪽)가 임명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차 대학원장은 앞으로 2년 간 임기를 수행하며 전북대가 연구 중심대학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매진할 계획이다.

"연구 중심대학 기틀 마련 매진"

전북대학교는 신임 대학원장에 차연수 교수(식품영양학과, 사진 오른쪽)가 임명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차 대학원장은 앞으로 2년 간 임기를 수행하며 전북대가 연구 중심대학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매진할 계획이다.

1998년부터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재직해 온 차 대학원장은 한식의 건강가능성 규명 등의 연구 분야에서 200여 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등 탁월한 연구자로 손꼽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로 2010년 과학기술우수논문상, 2012년 Nutriite 학술상, 2014년 대한비만학회 학술상, 2016년 KFN 학술대상을 수상했으며, 2016년부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정회원으로 선정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식을 세계 속에 알리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차연수 대학원장은 "거점국립대로서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체제 구축을 위해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 지역사회와의 협력, 연구경쟁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호원대, 신임 부총장에 장병권 교수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24일 임기 2년의 신임 부총장에 장병권 기획처장(항공관광학과 교수)을 겸직 임명했다고 밝혔다.

장병권 부총장은 한양대학교 관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문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관광정책론', '한국관광행정론', '관광대국의 길' 등 10여 편의 저서를 발간했다.

학내에서 대학혁신지원본부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입학처장, 취업지원실장, 새만금관광연구센터장 등 주요 보직을 수행하면서 교육부의 구조개혁평가, 대학기본역량진단, 대교협외의 대학기관인증평가를 안정적으로 추진했다.

대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새만금개발청,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북연구원 등의 전문·연구·평가·IT 위원으로 활발히 참여했고 현재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전북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 훈련생 모집

(재)전북여성새일하기센터(이운애 센터장)는 도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 직업교육 훈련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1월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 심사를 통해 사내요구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23일 4차 산업 융합 전문지도사 과정을 시작으로 총 8개 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훈련 프로그램은 ▲4차 산업 융합 전문지도사 ▲웹 마케터(전자상거래관리) ▲노인 케어(보호) 실무사 ▲온라인쇼핑몰·창업전문가 ▲멀티(다기능)행정사무원 1, 2 ▲탄소산업제조인력 ▲아이 돌봄 간병사 등이다.

4차 산업 융합 전문지도사과정의 경우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코딩, 드론, 3D펜·프린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으로 직접 코딩 프로그래밍한 드론을 3D프린터로 출력, 조립, 비행 등 영상촬영 훈련까지 구현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초과학·로봇코딩 및 방과 후 학교 운영실무 등 실습교육 확대를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재취업 지원 등 적극적 사회참여 통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 비대면 교육 및 비대면 관계망(SNS) 확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